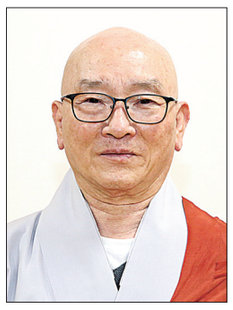
2023 불교복지 유공자…'차별 없는 세상' 발원

조계종복지재단, 유공자 발표

천안 각원사 주지 대원 대종사 등
시설·단체·사찰 등에서 43명 선정
12월 5일, 한국불교기념관서 시상


조계종 각원사 대원 스님


연화보호작업장 구견 스님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자비마을 묘전 스님


시립죽전어린이집 김향림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허종국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이 12월 5일 개최되는 제2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앞두고 불교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발굴, 포상하는 불교사회복지유공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복지재단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격려로 불교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더불어 정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불교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단체, 사찰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정부부처 추천 등을 통해 시설운영과 후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공자 43명을 선정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에는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안정적인 결식지원과 취약계층 아동 장학사업 등 천안의 다양한 불교사회복지 운영에 기여한 천안 각원사 주지 지산 대원 스님과 2008년부터 농촌 살리기 복지활동과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공헌한 나노인텍(주) 대표 박영식 등 총 15명의 개인 및 단체가 선정됐다.

대표이사 표창은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해 경상북도북부 지역의 주민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공감시키고 노인학대 예방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유도 및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한 경상북도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시설장, 여수시노인복지관의 찾아가는 농어촌이동복지사업 연계를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1회 이상 주말을 활용하여 농어촌지역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택의 전기 수리를 진행하고 200세대 이상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화재 예방의 최일선에 이바지한 여천ncc(주) 자원봉사단 등 총 19명의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된다.

약 16년간 홍천군장애인복지관과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을 역임하며 사회복지사로 강한 책임감과 추진력을 기반으로 서울 거주 1000만 어르신께 급식을 제공하였으며,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등 노인권익과 노인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희유 스님이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하게 됐다. 서호노인복지관 문태원 부장 외 2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이,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 주간보호센터 팀장 외 2명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여성가족부장관표창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재단과 함께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 운동과 자원봉사활동,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한화시스템 기업 외 2명의 개인 및 단체에 여성가족부장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제2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자비나눔 유공자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불교언론인상에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前편집국장

10월 31일 불교문화대전 폐막
언론·출판·찬불가 통합 시상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0월 31일 개최됐다.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前편집국장이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0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 한 해 한국불교 우수성을 널리 알린 작품과 언론인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은 10월 18일부터 2주간 열린 '2023 불교문화대전' 폐막식 행사의 일환으로,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출판문화상, 신작찬불가 공모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사부대중과 시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신 불교문화 예술인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오늘날 불교문화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큰 매개이자 미래에 계승될 소중한 가치다. 앞으로도 불교문화단체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격려했다.

스님은 특히 "26년을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하고 보도함으로써 한국불교 및 불교언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前편집국장에게 '불교언론인상'을 수여하게 됐다"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게 돼 다행스러운 마음"이라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불교언론인상을 수상한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前편집국장은 1997년 〈현대불교신문〉 공채 2기로 입사해 평생을 불교언론인으로 살아왔다. 〈주간불교〉에서 편집국 총괄부장을 지냈으며, 〈현대불교신문〉에서 편집부장과 편집부국장,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26년간 종단, 포교, 문화,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취재하며 불교계 소식을 대내외에 알렸다. 〈현대불교신문〉에서 불교문화체험기행을 기획해 4년 동안 진행했으며, 불교방송에서 '문화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행복스튜디오' '주간불교소식' '무명을 밝히고' 등의 프로그램 패널로 활동했다. △한국불교기자상 취재부문 우수상(2000) △한국불교기자상 대상 '선원빈 기자상'(2011)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우수상(2011)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상은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前편집국장 아내 박지현씨가 대신했다.

올해 불교언론문화상은 BTN '특집 다큐 스님의 눈물 2부작'이 대상을 수상했다. 방송부문 최우수상은 KBS청주 '특별기획 직지 시절인연',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은 BBS제주불교방송 '제주불교 4·3기억의 흔적을 되짚다', 언론보도부문 최우수상은 불교신문사 '이제는 禪명상 힐링의 시대',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비브로스팀 '걸어서 템플속으로'가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은 임영대 동국대 교수가 저술하고 동국대출판부가 출간한 〈금강역사상〉이 수상했다.

제10회 신작찬불가 공모전은 작사부문과 작곡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작사부문에서는 박인숙·강민영·임대열·안나현 작사가가, 작곡부문에서는 권유미·이서연·고원기 작곡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내영 기자

"조선시대 종교 박해, 천주교만 받았나"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연구 2차 학술세미나

박해 내세운 천주교 성지화
이웃종교와의 갈등 불가피



천진암 터와 주어사지, 서소문 등 여러 종교의 역사가 함께 서린 장소가 천주교의 독자적인 성지로 개발되는 현상을 짚어보고, 현대사회 종교의 공존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사진〉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10월 27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호국불교연구 2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선의 종교는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주제로 마련된 세미나는 조선시대 유교를 제외한 당시 배척종교의 박해 역사를 살폈다.

가장 먼저 불교에선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조선불교의 부침과 역사적 위상'을 발제했다. 한 교수는 △종단 통폐합과 사찰 철폐 △승가 해체와 의례 금지 △승역과 수탈 등 조선의 억불시책을 설명하면서 불교 말살 행위가 다각도로 전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도교의 조선시대 박해는 성주현 청암대 재일코리안연구소 교수가 맡았다. 가장 대표적인 박해는 동학 창시자 수운 최제우(1824~1864)의 처형. 성 교수는 "당시 동학은 서학으로 취급돼 박해를 받고 함께 배척됐다. 최제우는 동학이 서학으로 취급받는 것을 모욕으로 인식해 동학을 버릴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다"며 "그럼에도 교세가 성장하자 유림과 관의 박해는 점차 심해졌다"고 밝혔다.

동학의 배척운동은 영남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에서도 전개됐으며, 곳곳에 향약이 설치돼 동학에 입교하는 것을 막았다. 특히 다섯 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조직한 '오가작통'으로 주민을 감시하고, 이는 동학농민혁명 시기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데도 활용됐다.

이창익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한국천주교 성지 조성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천주교의 성지 개발방식이 종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천진암과 주어사가 이미 폐사된 사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천진암성지 같은 식의 개발은 타 종교의 성스러움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서소문, 포도청, 광화문, 광희문, 해미읍성 등에서도 국가적인 성스러움을 지우고 그 자리에 천주교의 성스러움을 각인하는 형태의 성역화가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교수는 또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박해의 이미지만을 덧씌움으로써 장소의 본래적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순교자 헌양과 성지 개발을 위해 어떠한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 한 이런 방식의 성지 개발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학술세미나에선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가 '조선 후기 남인의 서학 활동과 지식인 사회의 평가'를 발제했다.

윤호섭 기자

"노래·연기로 부처님법 전하겠다"

연예인전법단, 선업 스님 예방
바자회·송년법회 등 활동다짐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우봉) 연예인들이 노래와 연기 활동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릴 것을 다짐했다.

연예인전법단은 10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예방하고 "단원들이 합심, 전법 활동을 활발히 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예방에는 연예인전법단 연예인 대표 임혁 씨와 연극인분과 위원장 독고랑 씨, 가수분과 부위원장 진미령 씨, 가수분과 국민가수 임지민 양 등이 동참했다. 또 이한규 사무총장과 자문위원장인 장정화 대불청 회장이 배석했다.〈사진〉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연예인 전법단장인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단원들이 결속력 있게 활동하길 기대한다"면서 "포교원에서도 연예인전법단 홍보뿐 아니라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혁 연예인 대표는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전법활동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면서 "단원들과 결속해 활발한 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인전법단은 11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하림각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한국·해외 불교계 교류 협력 방안 모색"

조계종, 10월 31일 해외불교세미나
베트남·네팔 등 불교 변화 살펴

해외불교 현황과 특징을 파악해 한국불교와 교류 협력점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10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해외불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베트남·티벳·네팔·몽골 불교를 중점으로, 각 국가의 최근 10~20년 불교 동향과 변화, 시사점, 교육체계 등을 살폈다.

세미나에서 파주 베트남 사찰 주지 각려효 스님은 '베트남 불교의 신행 특징과 대표종단 죽림파 소개'를 주제로 발제했다. 각려효 스님은 현대 사회에서 불교를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대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정 (사)나란다불교학술원장은 '티벳의 승가교육 제도'에 대해 고찰했다. 박 원장은 "여전히 많은 선지식과 뛰어난 스승들, 풍요로운 배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티벳의 승가 교육제도는 티벳불교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라며 "중국의 침공으로 나라를 잃고 현재 망명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인도로부터 전승받은 정신적 유산을 지키기 위해, 불교의 미래를 위해 망명지에 사원을 건립해 승가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몽골불교의 전통과 현황'을 발표한 김경나 단국대 몽골연구소 연구교수는 "1937년부터 1990년까지 공산화로 불교는 큰 타격을 받았다. 현대 몽골불교를 복원하는 데 기여한 것은 티벳불교의 망명정부와 사원"이라며 "단절됐던 몽골불교는 티벳 망명정부가 건설한 겔룩빠 사원을 중심으로 스님들을 교육하고 교류하면서 점차 옛 면모를 찾아갔고, 몽골만의 색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내영 기자

로터스월드, 미얀마 홍수 이재민 지원 캠페인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59년 만의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미얀마 남부 이재민들을 위해 12월 31일까지 긴급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미얀마 바고 지역(양곤에서 북동쪽 약 68km에 위치)을 포함한 남부 지역은 10월 초 일주일 가량 내린 폭우로 시내의 90% 정도가 약 2m 내외로 잠기고, 1만8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등 심각한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수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빈민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특히 고아 등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바고 지역 다수 사원학교가 홍수로 피해를 입어 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사찰과 불자들은 로터스월드가 개설한 네이버 해피빈이나 후원계좌(기업, 024-071023-01-063, (사)로터스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02)725-4277

김내영 기자

"노아의 방주 관리 세금낭비 안 돼"

종교편향특위, 간담회서 뜻 모아
해미읍성 방문 계획도 구체화



최근 일부 지자체가 '노아의 방주' 구조물을 지역 내에 유치하기 위해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교편향특위 스님들이 "특정종교 상징물을 운영·관리하는 데 세금이 낭비돼선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종교편향특위)는 10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아의 방주' 구조물 한국 유치 논란과 관련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사진〉 간담회에는 위원장 선광 스님, 종회의원 제정·설조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교육부장 덕림 스님 등이 함께했다.

앞서 네덜란드 건축가 요한 휘버스가 자신이 만든 '노아의 방주' 대형 모형을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방주유치위원회가 방주 한국 유치와 관련해 지자체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자체가 앞장서 기독교 상징물을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유치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과도한 성지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위원장 선광 스님은 "(노아의 방주를) 기독교계에서 자체적으로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영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초기 비용은 기독교계가 마련한다 하더라도 토지나 운영비 등 향후 관리를 위해선 결국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해 노아의 방주 한국 유치와 지자체 설치에 문제는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노아의 방주' 유치 지자체가 확정될 시 종단 차원에서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복되는 종교편향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불교계의 역량을 강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종회의원 제정 스님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불자들의 인식 전환"을, 설조 스님은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제안했다. 교육부장 덕림 스님도 "스님들과 불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불교계가 설 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종교편향특위는 천주교 성지화가 추진되고 있는 서산 해미읍성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 계획도 구체화했다. 차기 회의에서 일정을 확정 짓고 현장에 동반할 역사학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